

투데이 칼럼

강아지도 한방 치료 받는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

최근 1인 가구 증가, 출산율 저하 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을 넘어섰다.

이제 반려동물은 반려인들에게 '가족'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강아지 전용 오마카세, 강아지 장례식 등 반려동물에게 뭐든지 해주고자 하는 트렌드가 생기며 관련 산업들이 부상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한방수의학이다. 아직 사람들에게 생소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반려동물이 아픈 보호자라면 한 번쯤은 접해보고 싶을 것이다. 강아지나 고양이의 뼈를 짚고 침을 놓고 한약을 먹이는 것이다. 사람과 치료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다.

반려동물이 밤에 잠을 안 자거나, 밥을 안 먹거나, 하루 종일 누워 있을 수도 있다. 질병을 발견한 후 양의학적 치료를



송 예 은

습주수의원 의정부점 진료원장

했음에도 한계가 생기는 경우,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를 한의학적 접근으로 치료하는 것이다.

다리의 뼈를 짚거나 환부를 눌렀을 때의 반응, 반복적인 이상 증상을 파악하는 등 여러 진단을 종합해 파악한다.

요즘은 노령화된 강아지들이 많아, 사람처럼 척추 디스크가 터지기도 한다. 이런 경우 한방 동물병원에서는 NSAIDs 진통제

와 함께 침 치료를 병행하는, 양한방 통합치료를 하기도 한다. 보호자가 비침습적인 치료를 선호할 뿐만 아니라 수술을 해도 완전한 치료를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약의 경우 사람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몇몇 약재는 동물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삼(人蔘)의 경우 사람의 기를 북돋아주는 보기가

(補氣藥)으로 분류되지만 동물에게는 과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한방수의학을 한의학, 수의학 어느 영역으로 봐야할지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수의학은 양의학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치료의 원리가 한의학적 접근은 부인할 수 없다. 더불어, 말 못하는 동물이 치료 필요로서 한의학적 치료 효과를 플라시보 효과로 평가할 수도 어렵다. 한의학적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 안정성과 치료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셈이다.

'사람도 못 먹는 한약을 동물이 먹는다'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동물이 아니라, 삶의 의미일 수도 있다. 삶의 동반자를 위해 못할 것이 어디 있을까.

사설

전주의 음식값 더 내려야

전주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라고 외지인들에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오지만 무엇보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음식이다.

외지인들은 콩나물 해장국과 비빔밥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다.

그만큼 널리 알려지기도 하고 맛도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다. 비빔밥 한 그릇에 보통 1만 4000원으로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는 전주 MBC의 보도도 지난 5월 중에 있었고, 지난 6월에는 전북도민일보에서도 전주비빔밥과 삼계탕이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에 필자는 고미술 전시회 관람차 서울 인사동에 다녀왔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유명 설렁탕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신선하고 맛있는 식사가 단돈 1만 원이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주인장이 직접 와서 반찬이 부족한 것은 없는지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챙기는데 저절로 감동이 되었다.

어찌해서인지 우리 전주의 식당과 자연스럽게 비교가 된다.

요즘을 볼가도 오르고 최저임금도 1만 원을 넘어서서 종업원들 구하기도 어려워 식당에서도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는 줄 잘 알고 있다.

그래도 전주하면 인심 좋은 고장이고 맛과 멋의 고장인데, 그걸 즐기러 오는 외지인들이 전주에 와서 실망을 하고 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심을 내 다시 오는 오지 않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는 집세가 비싸고 종업원들 구하기가 더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쉽지 않을텐데도 1만 원이면 맛있는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데 왜 전주에서는 그게 안 될까 의문이 든다.

전주의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이 갈수록 약해지는 것 같아

전주를 아끼고 사랑하며 전주에서만 살아온 전주 토박이 입장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전주에는 이렇다 할 공장도 별로 없어 젊은이들이 외지로 돈 벌러 나가서 인구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어서 전에 10대 도시 안에 전주가 들었는데 이제는 어렵도 없다. 서울 인근 경기도에 여러 큰 도시가 생겨나서 전주는 얼마나 뒤쳐졌는지 이제는 가늠하기조차 부끄러운 도시가 되었다.

앞으로 전주가 얼마나 더 조그라들어서 더 적어질지는 모르지만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없어 호텔도 준비하고 그런대로 도시가 유지되고 있어 다행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체류형 관광지가 아니고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라고 걱정했는데 시대를 보면 제법 규모가 큰 여관이나 호텔도 준비하게 들어가고 한옥 민박도 많이 있어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식사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외지인들이 다시 찾고 싶은 전주가 되는데 부담스러운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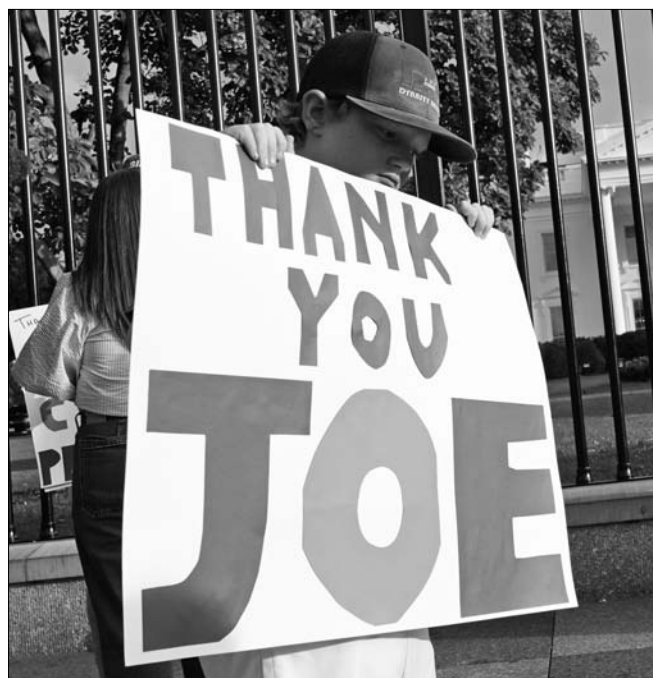
음식집에서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가격을 올려서 해결하지 말고 적당한 가격으로 외지인들이 전주를 생각하면 푸짐하고 넉넉한 음식을 대접하는 어머니의 품 같은 도시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와서 힐링과 기를 받고 힘을 얻어가는 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한다.

그렇게 된다면 규모가 조금 작으면 어찌랴? 어제 온 손님이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온다면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전주가 되리라 생각해 보면서 전주의 음식값을 걱정해 본다.

물론 요즈음 경영이 어려운 음식점 점주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대선 후보 사퇴' 바이든에 인사하는 소년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밖에서 가족과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하기 위해 나온 10세 소년이 바이든에 대한 그간의 고마움을 적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델라웨어주 사저에서 격리 중이던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을 107일 남기고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갈라타 타워에 걸린 7월 보름달 '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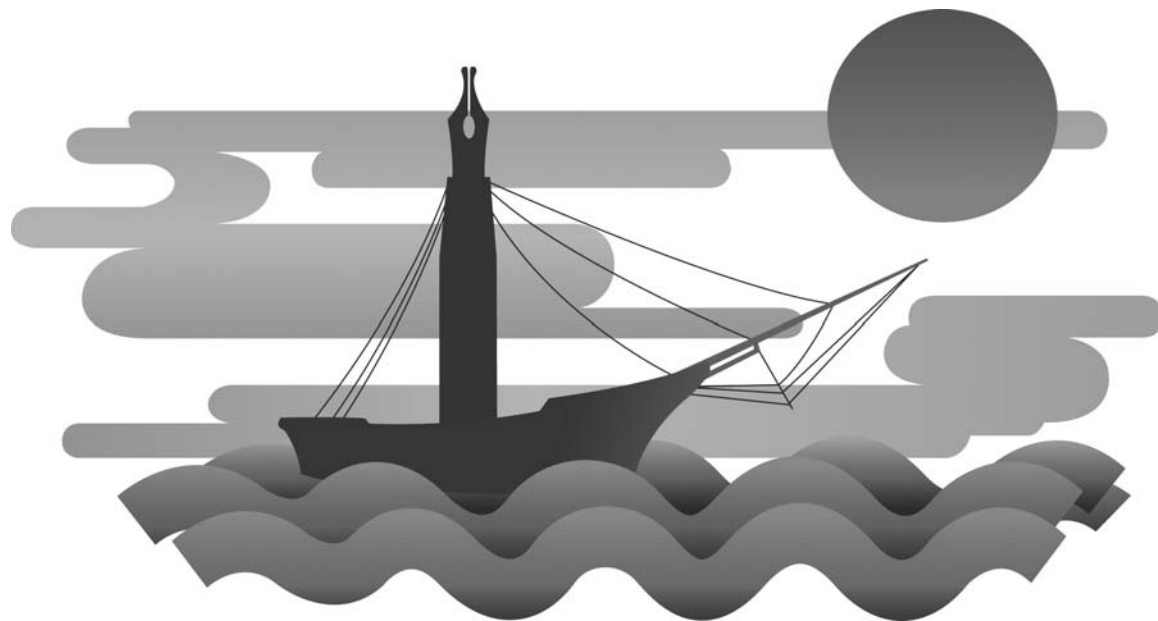
21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랜드마크인 갈라타 타워에 보름달이 걸려 있다. 7월의 보름달은 '벅문'(Buck Moon)으로도 불리는데,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어린 수슴의 뿔이 자라기 시작하는 시기를 기념해 붙인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